



일본 NISA의 순항과 양대 과제

일본에서 금년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는 계좌 개설자가 증가하고 개인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대체로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중장기 자산형성 촉진을 표방하고 있는 NISA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투자저변 확대와 이용의 편리성 제고라는 양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됨.

- 일본에서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소액투자비과세제도(일명 NISA)가 대체로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NISA는 투자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 엔 한도 내에서 주식 및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배당수익이 5년간 비과세되는 제도임.
 - 이를 이용하려면 증권사나 은행 등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가입 대상자는 20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임.
- 일본 정부는 NISA의 시행으로 가계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함은 물론 '저축에서 투자로'의 흐름을 촉진시켜 기업과 실물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려고 함.
 - 일본은행(BOJ)에 따르면 일본 가계부문의 금융자산은 2012년말 1,552조엔에서 2013년말 1,645조엔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현금·예금 53.1%, 주식·출자금 9.4%, 투자신탁 4.8%, 채권 1.8%, 보험·연금준비금 26.7%, 기타 4.2%로 구성됨.
 - 2012년말 기준으로 주요국별 금융자산에서 현금·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 55.2%, 독일 40.9%, 프랑스 30.2%, 영국 29.2%, 미국 14.5% 등으로 일본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의 주식투자 비중은 약 8%로 미국의 약 30%와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향후 5년간 연평균 1.3조엔의 개인자금이 NISA를 통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이는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일본주가를 매년 5%씩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함.
- 최근 일본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이 노무라증권 등 5개 대형 증권사와 SBI증권 등 5개 온라인 증권사 등 1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 3월말 현재 NISA계좌로의 개인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NISA 시행 이후 1개월 시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개인자금 유입액은 3,000억 엔에 달하였음.
 - 이후 2개월간 2,000억 엔의 개인자금이 추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당초 시행 1개월 기간까지의 유입액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되긴 하였으나 금융기관들이 금년 1월 전후로 집중적인 판매공세를 펼친 점을 감안하면 개인투자자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금년 3월말 시점 조사대상 10개 증권사의 NISA계좌 개설수는 323만명으로, 이 중 1/4에 해당하는 77만명이 실제로 주식이나 투자신탁을 구입하였으며, 계좌당 투자금액은 평균 62만 엔에 달하였음.
 - 이들 투자금액 중 주식과 투자신탁 구입에 할당된 비중은 각각 60%와 40%로, 투자신탁의 비중이 지난 1월말 조사의 30%에서 10%p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또한 투자자들은 양도차익보다는 배당수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자들이 매입에 주력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주식에서는 다케다약품공업(武田薬品工業), 미즈호파이낸셜그룹(MUFG), 캐논 등 상대적으로 배당이 높은 종목들이 상위를 차지함.
 - 상위 10대 매수종목들의 배당수익률(배당금/주가×100)을 계산해보면 대부분 3~4%의 높은 수준을 보임.
 - 투자신탁에서도 배당수익이 비교적 높은 부동산투자신탁(REIT)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음.
- 여성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진출과 중장기 투자접근 방식이 두드러지는 현상도 나타남.
- NISA계좌 개설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하였음.
 - 일반계좌를 통한 여성의 투자 비중이 통상 20~30%인 점을 감안할 때 NISA의 시행으로 여성의 자산형성 수요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SBI증권에서는 매월 일정액으로 동일한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적립식펀드의 70%가 NISA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중장기 투자성향이 강화되는 효과도 나타남.
- 증시 전체로 볼 때 NISA를 통한 개인자금의 유입은 주가의 하락압력을 완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외국인은 금년 1~3월중 1조 8,000억 엔을 초과하는 일본 주식을 순매도함.
 - 이에 비해 개인은 1조 5,000억 엔 이상을 순매입하여 NISA를 포함한 개인자금이 일본 주가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일본의 NISA는 순항하고 있기는 하나 투자저변 확대와 이용의 편리성 제고라는 양대 과제도 안고 있음.
- NISA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저축에서 투자로’의 흐름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자산형성을 시작하는 20~30대와 투자미경험자에 초점을 맞춘 투자저변 확대가 필수불가결한데, 이번 조사에서는 계좌 개설자들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졌음.
 - 계좌 개설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면영업을 전개하는 대형 증권사의 경우 60대 이상이 약 70%를 차지하고, 온라인 증권사의 경우에도 20~30대의 청년층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불과하였음.
 - 이에 따라 현역세대와 투자미경험자를 대상으로 NISA 도입의 취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도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는 비과세 혜택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중장기 자산형성 촉진을 표방하고 있는 NISA계좌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비과세 영구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음.
 - 또한 일본증권업협회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국의 Junior ISA와 유사한 Junior NISA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KIF**